



말해봅시다는 경향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화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료: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스쿨버스 승차권 소비적 편의·효율성 위해 교체 필요

수원캠퍼스로 통학하는 학생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본인과 친구들이 생각해 왔던바를 얘기하고자 한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같이 타는 스쿨버스의 승차권이 너무 소비적이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종이 가 얇아 잘 구겨지고 찢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하면 그만이라 매일 사 쓰기도 귀찮고 불편하다. 스쿨버스를 타는 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본 것일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전철이나 기차의 패스같이 한달분량으로 네모지고 약간의 두께가 만들어 한번 사용해도 마다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같이 구입할 필요도 없고 사용도 간편하며 표를 받는 아저씨도 일일이 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훨씬 편해질 것이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특히 월요일 아침이면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 매우 혼잡하고 정신이 없다.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해 매표소 주변 또한 같은 상황이다.

이같은 점이 개선되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시정되길 바란다.

김 대 희
(불문·1)

질서에 무감각한 대학인 -강남터미널의 혼잡을 보며

저는 30대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거리에 비친 대학인의 질서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근무하는 곳은 강남역 부근으로, 아침에 전철을 타고 강남역에 하차를 하여 직장으로 향하다보면 서울근교로 등교를 하는 많은 대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그 장소에는 무질서가 존재하여 그곳을 지나는 많은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분명 자유스러운 대학 캠퍼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들과

요철과 서행운전등 안전대책 마련 시급

수원캠퍼스 교내 차량진입에 따른 문제점

우리 수원캠퍼스에는 하루에도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출입한다. 또한 각 단체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차로 등교를 하고 있다. 하루동안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캠퍼스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고 있기에 이에 따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 수원캠퍼스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첫째, 수원캠퍼스가 교내도로에 요철이 전혀 없다.

요철은 자동차의 과속을 막기

위한 동시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캠퍼스가 생긴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내도로에는 단 한개의 요철도 존재하지 않는다. 별로 넓지도 않은 도로에 요철마저 없는데다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레이스라도 되는 양 무시무시한 속력을 낸다. 방학중에는 교내에 학생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난다. 더구나 도로에는 보수를 전혀 하지않는 곳곳에 구멍이 파이고 갈라져 급회전, 급제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여러 학생들이 걸알고 있듯이 도로에는 차가, 인도에는 사람이 통행한다. 그러나 교내도로에는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 없다. 모든 학생들이 도로를 통해 다녀야 한다. 보행자의 결로 차들이 지나 다니게 되니 차의 돌출물-백 미터 같은-보행자가 다치게 될 위험이 크다.

셋째, 수원캠퍼스 교내에는 제대로 마련된 주차공간이 없다.

교내도로에는 자동차에 비해 좁은곳이 많다. 2호관 광장과 4호관 앞은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양쪽에는 주차시킨 차들로 인해 더욱 비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좁은도로 좁은 도로에 사람과 차가 함께 통행하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다니기가 수월치 않다. 특히 4호관 앞은 급 회전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켜놓아 서행하며서 통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우리 수원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차량통행증 발급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회기캠퍼스만 보아도 차량통행증 없이는 교내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 중앙대 안성캠퍼스 같은 경우 별도 주차장을 마련하여 차량의 교내진입을 막고 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세가지만 언급하였다. 수원캠퍼스의 지리적 문제로 인해 차량통행은 어렵겠지만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요철만이라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전자들은 교내에서 서행하며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길 바란다. 8월26일 25분경 체육과학대학앞에서 몰리학과 90학번 학형이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에 치어 발목이 바퀴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운전자-학생이며 여자였다-는 운 좋다는 불운도 없이 뺄소리고 말았다. 차량번호는 물론 알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공개적인 정중한 사과가 없을 때에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

홍 석 호
(자연대 물리·2)

교수동정

윤충교수 스웨덴행

▲윤충(의학과)교수=지난 23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제의과학 학회 참석차 스웨덴방문 ▲정인식(공대·유전공학)교수=오는 12일부터 92년 12월까지 Post-Doc 연구를 위해 캐나다방문 예정 ▲김상국(체과대·체육학과)교수=지난달 30일부터 9월18일까지 미국방문 ▲전승욱(공대·전자공학)교수=지난달 30일부터 9월10일까지 중국행

습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김태규(사학·88) ▲박성근(생물·89) ▲전지훈(지리·91) ▲박정민(영문·91) ▲원준우(철학·89) ▲백미자(법학·87) ▲한영중(경제·87) ▲윤용성(경제·88) ▲이미선(경영·89) ▲임병환(경제·85) ▲이진경(회계·89) ▲정석재(무역·91) ▲안현식(경영·90) ▲박선화(미교·90) ▲안순영(영교·89) ▲김재현(미교·91) ▲손동현(영교·90) ▲김영아(의예·89) ▲고용호(의예·90) ▲홍세영(한의예·91) ▲김 진(기약·91) ▲이민숙(체육·88)

【수원캠퍼스】 ◆학생증=▲유성은(불문·88) ▲이성기(무역·88) ▲오혜식(경영·90) ▲남정현(유전공학·88) ▲김양호(기계공·89) ▲최승준(기계공·89) ▲정훈화(토목공·89) ▲성영진(원자력·90) ▲노윤경(요공·88) ▲이재준(전자공·90) ▲선은주(농학·90)

동문모임

신흥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창석고=오는 5일 오후 6시 마니분식 ▲대일고=오는 오후 5시30 마니분식 ▲수성고=오는 6일 오후5시 녹원 ▲석관고=오는 6일 오후5시 사자상 ▲부산항우회=오는3일 오후 5시 경희회관 ▲신흥고전여고=오는 3일 오후5시 경희회관 ▲자양고=오는 4일 오후 6시 버거킹 ▲동대부고명성=오는 3일 오후6시 체대대 녹원

【수원캠퍼스】 ▲부산 배정고=오는 3일 오후5시만 공대휴게실 ▲부산 동아고=오는 4일 오후5시만 공대식당 ▲선덕·영광고=



오는 3일 오후5시만 공대식당 ▲승실·송의고=오는 3일 오후5시만 공대휴게실 ▲유신고=오는 4일 오후5시만 외대식당 ▲명지고=오는 5일 오후5시만 공대휴게실 ▲인원(여)고=오는 3일 오후 5시만 외대식당 ▲창원고=오는 6일 오후5시만 외대식당 ▲부산 산 진·여고=오는 5일 오후5시만 공대휴게실 ▲수성·수여고=오는 6일 오후 5시30분 외대식당 ▲천안항우회=오는 2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이리항우회=오는 3일 오후5시 공대휴게실 ▲삼척항우회=오는 5일 오후5시만 공

대식당 ▲밀양항우회=오는 3일 오후6시외대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박문수(화학·3) ▲이길철(영문·4) ▲이용관(화학·2) ▲김성구(사학·4) ▲권수정(국문·3) ▲권말태(생물·3) ▲권순철(행정·2) ▲김경환(행정·1) ▲한중인(행정) ▲최진수(경영·2) ▲안순기(경제·2) ▲정재훈(경의·3) ▲정용원(경영·2) ▲오선관(무역·1) ▲정민철(무역·2) ▲황정식(경영·1) ▲안용찬(경영·2) ▲전장덕(경제·2) ▲최환관(전지·2) ▲박영익(농학·2) ▲이철호(의문·2) ▲김주찬(한외·4) ▲김동성(한외·2) ▲강대호(한외·6) ▲송인석(약학·3) ▲이향전(약학·4) ▲김현규(체육·3)

【수원캠퍼스】 ▲강진경(예지원·538호) ▲김효규(토목·4) ▲김종우(경영·3) ▲이경우(건축·3) ▲강민준(기계·2) ▲박영익(기계·2) ▲장원우(기계·3) ▲김경희(환경·1) ▲이승훈(식품·3) ▲주용창(조경·1) ▲이상엽(토목·1) ▲이종관(전지·2) ▲심기석(농학·3) ▲나상훈(물리·2) ▲송금영(경영·3) ▲박민철(원자·2)

무역학과 총회 개최

무역학과 학생회는 오는 5일 오후 12시 입강교실에서 북학생 환영회와 2학기 과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1학기 평가와 2학기 계획, 회칙개정과 교수총원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 늙은 농부의 처절한 '땅 지키기'

산업폐기물로 황폐화되는 민중 삶의 터전

"나는 죽어도 좋아 살 만큼 살았을게" 이말은 8월31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투고의 첫 시작하는 말이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대학생으로서 심한 분노와 우리의 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한 가닥의 자책감으로 이글을 쓴다.

위의 말은 지난 23일 충남양양에서 있었던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처리장인 농촌산업의 폐쇄와 피해원상복구를 위한 시가행진에서 한 늙은 농부가 전경들의 무수한 몽둥이를 맞으면서 외쳤던 말이다.

이곳에 건설된 농촌산업이 유기화합비료를 생산하며 중금속을 땅에 쏟아부은 것이 밝혀지자 주민들이 불법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협상을 했다. 하지만 협상이 별 진전이 없자 생존권을 내걸고 거리시위를 벌였는데 주민들의 요구에의 대답은

경찰의 무수한 몽둥이 세례였던 것이다.

늙은 농부의 절규에 가까운 그 외침은 썩은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이땅의 모든 농부들의 심정이 아닌가 한다. 지난번 홍수때 경기도 용인군의 골프장 시도가 농가에 가득차 있는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이 다시 생각났다. 골프장 설립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방송에서 열핏 들었을때 우리 사회는 모두 무관심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농가를 몰속에 가두었고, 언론은 몇일을 보도하다 또 잠잠해졌다. 그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데도 말이다.

이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과 일이 깃든 곳이다. 가진자들의 유희를 위하여 골프장으로 파헤쳐지거나,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중금속이나 물어버리는 그런 쓰레기 하치장이 결코 아니다. 부

동산 투기로 살 곳이 없고 UR로 인해 설 땅을 잃은 우리 서민들, 우리 부모님들인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시골 출신 이면서도 서울에 살다보니 이런 일들이 그저 남의 나라일인양 무관심 해지는 것은 나까지 점점 무감각한 현대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의 한구절이 유난히 떠오른다. 새는 집들곳이 없어서 우리결을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지 않았나 한다.

우리 모두 '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땅을 훼손시키는 가진자들과 싸워야 하며 그런 싸움이 있는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윤 병 현
(정외·1)

이 시대 母傳女傳의 이중주

9월 주제
'어머니'

어머니란 단어는 모성이란 개념과 즉시 연결된다. 모성을 주제로한 실화나 문학작품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몇해전 한라산에 갔을 때 들었던 오백정군마위에 대한 민담도 그 한 예이다. 옛날에 제주도 섬문태할망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자그마치 오백정이나 되었다. 섬문태할망은 키가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발이 제주도 앞바다에 다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도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모두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러 오백정할망은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아들이 돌아오면 먹일 죽을 커다란 가마솥에 끓이다가 발을 잘못디딘 할망은 그만 그 속에 빠져죽었다. 이 사실을 모른채 아들은 죽을 다른날보다 맛있다고 생각하며

먹었고 막내아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죽을 먹기위해 솥뚜껑을 엮다가 커다란 뼈다귀를 발견한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형들을 저주하며 같이 살 수 없다고 떠나고 뒤늦

죽통속에 빠진 엄청난 어머니의 사랑을 미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 혹은 모성이란 이름하에서 당연히 되거나 미화되는 회생을 우리는 흔히 본다. 어머니의 희생과 고통은

어머니 혹은 모성이라는 개념은 생명의 원천이며 사랑이며 평화로움 내지 편안함이며 고통에 대한 인내심을 나타내고 있다

게 어머니의 죽음을 안 다른 아들들도 어머니를 그리다 오백개의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설화는 섬문태할망의 죽음이 결코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음을 암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본능적인 것이고 모든 어머니는 본능적인 모성수행에 만족한다는 식의 모성찬미는 어머니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어머니'라는 이미지속에 고착시키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 혹은



김 정 애
(문리대교수·영문학)

알고 있다.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하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희생을 세월을 인내로 살아오셨다. 자신

들의 삶이 왜 그토록 애잔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채 당시의 자녀들은 인고의 세월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는 자신의 복사라고 생각되는 자녀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으려 어머니 자신의 열등성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의 딸들 특히 여대생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매우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즉 자신은 어머니처럼 살지않았다는 거부감과 결국은 그렇게 살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래의 어머니가 될 오늘날의 딸들은 어머니의 삶을 되풀이하지않기 위하여 확실한 인식해야 할것이 있다. 가장 풍부하고 알찬 생활을 누렸던 딸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가장 적게 요구한다는 것과 노력속에서 참다운 인격적 가치를 획득하고 자신의 책임을 자각한 딸이 진정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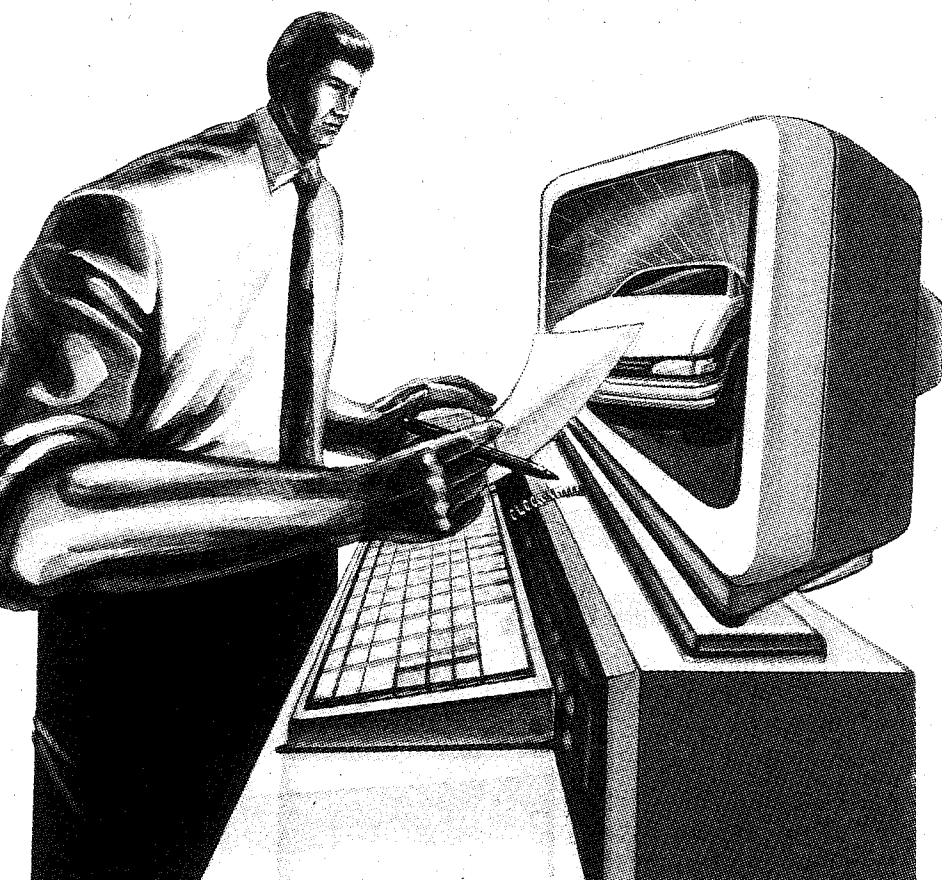
무한대의 첨단 자동차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 -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갑니다.

미래 자동차기술의 이정표를 세운다. 현대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을까? 상급한 내용이 풍기는 무궁해 연료가 있으면 좋을텐데... 음속을 초월하는 초고속 자동차는 언제쯤 타 볼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이땅에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을 열어간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는 현대 마복리연구소 사람들- 이들이 바로 꿈속에서도 태산처럼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하나 둘 풀아가며 자동차 한국의 꿈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밝히는 연구소의 불빛 -

인체공학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마복리연구소 연구부- 이곳의 연구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①엔진의 성능 향상과 수소, 알콜 등 대체연료의 개발을 담당하는 열유체부문 ②엔진 경량화, 저소음 무공해를 연구하는 구조해석부문 ③ 연료분사, 점화시각의 전자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자부문 ④플라스틱, 세라믹 등 초경량, 고강성의 신소재 개발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재료부문에 새롭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자동차, 꿈의 자동차 시대를 앞당겨 가는 연구소의 불빛은 지금도 밝고 있습니다.

은 미래를 창조해갈 역사의 참주인은 바로 그대 -

자금은 인간의 행복과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내일을 힘 모아 창조해 가야 할 때입니다. 진리의 길에서도 자칫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위대한 장점으로 바꿀 줄 아는 젊은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은 역사의 참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현대自動車